

INTERVIEW

엄마의 노래

세계적인 레이블 ECM에서 음반 <루아야>를 발표하고, 뉴욕 루빈 갤러리에서 단독 콘서트를 가진 재즈 보컬리스트 신예원은 엄마가 되어, 엄마의 노래를 부른다.



뉴욕의 4월은 긴 겨울과 짧은 봄이 만나는 아쉬운 시간이다. 유난히도 길고 추웠던 올 뉴욕 겨울의 끝자락, 봄바람 같은 표정의 재즈 보컬리스트 신예원을 만났다. “뉴욕은 제게 고향 같은 곳이에요. 2년여 만에 찾은 뉴욕인데 신기하게도 제가 떠나 있던 오랜 시간 동안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매일 가던 식당에 아직도 같은 종업원들이 있고, 친구들도 같은 곳에서 잘 지내고 있네요. 변한 건 저예요. 어느새 엄마가 되어서 돌아왔으니까요.” 공연일인 지난 4월 23일, 무대 뒤에서 만난 그녀는 아이처럼 들떠 보였다. 80여 명의 관객이 가득 찬 루빈 뮤지엄의 지하 공연장. 그녀와 피아니스트 아론 파크스Aaron Parks, 아코디언 연주자 롭 커토Rob Curto가 함께 무대에 올랐다. 차분한 분위기의 어두운 조명 아래 신예원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소로록 꿈속으로…’ 익숙한 한국어에 담긴 엄마의 자장이 선율이 흘러나오자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관객들은 의미를 알지 못하는 가사 하나하나, 그녀의 몸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에 집중했다.

엄마에게 바치는 노래

대중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신예원은 돌연 재즈를 공부하기 위해 뉴욕 유학길에 올랐고, 2010년 재즈 보컬리스트로 첫선을 보인 셸프 타이틀 음반 <예원Yeahwon>을 발표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Antonio Carlos Jobim에서부터 에그베르토 지스몬티Egberto Gismonti까지 브라질리언 음악을 가득 담은 이 앨범이 2011년 라틴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오르며 그녀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신예 여성 싱어로서 매우 이례적인 성과였다. 이후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인 음반 레이블 ECM을 통해 두 번째 앨범 <루아야Llua ya>를 발표하며 다시 한 번 많은 음악 팬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이 앨범에서 그녀는 우리에게 익숙한 ‘과수원길’ ‘오빠 생각’ ‘자장가’ ‘섬집 아기’ 등 한국 동요를 섬세한 즉흥 연주로 풀어냈다. 브라질리언 음악에 매료되었던 그녀가 ECM 데뷔 앨범으로 한국의 동요들을 선택한 이유가 문득 궁금해졌다. 잔잔하게 부른 어린 시절 기억 속의 멜로디는 사실 그녀의 딸 ‘루아’와 세상의 모든 엄마들에게 바치는 노래다. “ECM의 프로듀서로 일하는 남편과 친구인 아론 파크스의 앨범 녹음 현장인 메케닉스 홀을 방문했는데 우리 일행 모두 풍성한 어쿠스틱에 매료되었어요. 그 공간의 사운드를 테스트해보고 싶다는 남편의 제안으로 아론과 제가 무대에 올랐고, 그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흘러나온 노래가 ‘섬집 아기’였어요. 한 번도 이 곡을 들어본 적 없던 아론은 순간의 느낌에 따라 피아노 반주로 저를 따라왔고 그 느낌이 너무 좋아 결국 정식으로 녹음하게 되었죠. 그런데 몇 주 후, 제가 루아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 그 무대에서 왜 ‘섬집 아기’의 첫 소절이 흘러나왔는지 알 것 같았죠. 예전 그 무대에서, 즉흥으로 이루어졌던 시도처럼 제가 들으며 컸던 아름다운 동요들을 그 순간의 에너지와 느낌으로 다시 고스란히 담아내고 싶었어요.”



자유로움과 편안함

아코디언 연주자 롭 커토와 함께 담백한 듀오 연주로 ‘오빠 생각’이 이어지는 순간, 아코디언의 건반 소리가 뽀뽀새 소리처럼 구슬프게 들리는 듯하기도 했고, ‘구슬비’를 함께 풀어내는 아론 파크스의 청아한 피아노 사운드는 경건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첫 번째 앨범을 위해 포르투갈어를 배우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 편곡을 준비했던 것과 달리 이번 앨범은 아주 즉흥적인 것을 담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제 스스로 저의 음악적 감각을 믿어야 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음악가로서 담아가고 싶은 지향점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했어요. 오늘 공연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결국 100% 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게 제가 원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음악을 더 잘 하려고도, 예쁜 목소리를 내려고도, 예쁘게 보이려고도 하지 않고 현재의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두려움 없이 음악 속에 담아내려고 했고, 그 결과에 무척 만족해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니까요.” 무대에서 눈을 감고 노래하는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운 동시에 무척 편안해 보였다. “엄마가 되고 뉴욕에서 독일 뮌헨으로 생활의 터전을 옮기면서 많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다행히 뮌헨은 자연과의 교감이 풍부한 곳이라 루아를 키우는 엄마로서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따뜻한 날엔 근처 놀이터에 나가 맨발로 모래 위에서 뒹굴기도 하고, 아이들은 돌멩이와 꽃을 모아 인디언 놀이를 해요. 엄마가 되어 아기가 세상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보조해주다 보니, 삶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더군요.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자유로움과 편안함. 나이가 들수록 꾸미지 않은 솔직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노래가 좋고, 함께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화려한 테크닉이 주는 짜릿함보다는 서로 주고받는 호흡과 조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밤을 새지도 모른다며 루아 엄마 신예원은 환하게 웃었다. 신예원의 시아버지인 지휘자 정명훈은 손녀를 위해 얼마 전 <피아노piano>라는 이름의 피아노 소품집을 내기도 했다. 공연장을 빠져나와 17번가를 걸으며 아직 꽤나 찬 바람에 옷깃을 여몄다. 그녀가 들려주었던 따뜻한 엄마의 노래가 촉촉하게 마음에 젖어드는 밤길, 양 길가에 만개한 벚꽃처럼 환하고 향긋한 봄을 새삼 만끽했다. ▽